민주 광주시장 ‘4-3-3 경선’ 추진 왜?

여론조사 당원투표 배심원제

지역 정치권 컷 오프 거부감 무마 기대

일부선 “배심원제 비율 높고 당헌 위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거론한 ‘혼합 경선안(국민참여경선+시민공천배심원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을 놓고 광주시장 후보군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거론한 혼합경선안은 지금까지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실상의 ‘일괄타결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대표의 ‘혼합경선안’은 국민참여경선 방법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 압축(컷-오프) 과정을 생략하고 시민 여론조사 40%, 당원경선 30%, 시민공천배심원제 평가점수 30%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혼합경선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광주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으로 ‘혼합경선안’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가‘혼합경선안’을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혼합경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혼합경선안에 시민공천배심원제(30%)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반영 비율을 20%대로 낮추고 시민 및 당원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당원 경선 부분에서도 모집단을 최대화, 동원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혼합경선안이 현행 민주당 당헌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은 “정 대표가 제시한 ‘혼합경선안’은 당헌 등 법리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없다”며 “광주시장 선거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다면 ‘혼합경선안’ 도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혼합경선안을 포함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은 25일 개최되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며 이르면 다음 달 초반에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축하 박수는 치지만… 정운찬 총리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한 제46회 한국보도사진전에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야권 연대 ‘방법론’ 논란 가열

정동영 연합정당론-유시민 공천배분론-정세균 지방공동정부 주장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의 선거연대 협상과 관련,‘방법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정동영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연합정당론’을 제시했다.

현행법으로는 다른 정당 후보 간에는 경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 정당(지지자 연합정당)을 만들어 각 당의 후보를 입당시킨 뒤 국민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를 뽑고, 선거 후에는 각 후보의 지지율을 기초로 지방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날 6월 지방선거에서 거대 여당에 맞서 승리하는 길은 여권과 야권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나 정 의원의 연합정당론에 대한 당내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일종의 편법을 통해 가설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야권 연대 방안으로 지방공동정부 구성을 내세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공동정부 구성과 운영’이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를 갖고 선거연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연합공천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시민참여예산제와 각종 자문위 공동 참여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부단체장 배분과 정책별 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앞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세운 정당 지지율에 따른 공천배분론은 민주당 측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진보 신당 등 野 4당

광주서 반민주 연합공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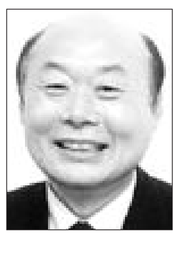
진보 신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 광주시당이 반(反) 민주 연합공천을 추진한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위원장(광주시장 예비후보)과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세현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위원장, 정용식 창조한국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4일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사무실에서 만나 연합공천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는 방안을 협의했다. 야 4당은 3월 초까지 실무진 협의를 진행 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짓지고 했으며,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1대1 연합공천’의 대상은 광주시의원 후보를 중심으로 하되, 광역단체장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핫코너

박광태 “이젠 테마파크 시대 대비를”



박광태 광주시장은 24일 “지구촌 시대 각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 앞으로는 테마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광주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과 건설업 등 연관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체험하고 즐기며 머무는 관광 기반시설의 구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채 “시장 후보 리더십 검증 필요”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광주는 경제위기뿐 아니라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광주시장 후보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실현, 광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 군 공항과 탄약고 이전을 통한 광주공항 위상 정립 등과 관련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무안군수 3선 도전 공식화

서삼석 무안군수는 2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무안군수예비후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했다.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 군수는 민선 3·4기 무안군수를 역임하며 전남도청 이전, 무안국제공항 개항,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유치 등 무안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안군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친활력 최우수군 선정되고, 풀뿌리 민주대상과 지방자치대상(3년연속)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창종 담양군수 출마 선언

유창종 전 담양부군수는 24일 담양문화회관 소 공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양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부군수는 “풍부한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선거 후유증으로 생긴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담양 중흥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군수는 ‘화합하는 군수’ ‘경제 군수’ ‘청렴한 군수’ ‘생활 군수’ 등 4대 군수상을 제시했다.

이정재 김대중센터서 출판기념회

이정재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교육을 향한 40년 외길 인생을 기록한 ‘총장님, 어디 가십니까’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은 함평에서 태어나 조카셋을 책임진 18세 가장으로 청년시절을 출발한 이 후보가 초등교사부터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하고 다시 평교수로 강단에 서기 까지 40년간 일선 교육현장을 지켜오면서 겪었던 교육전문가로서의 삶이 담겨 있다.

이철원 남구청장 출마 선언

이철원 광주시의원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해양과 광주를 하나의 관광촌으로 만들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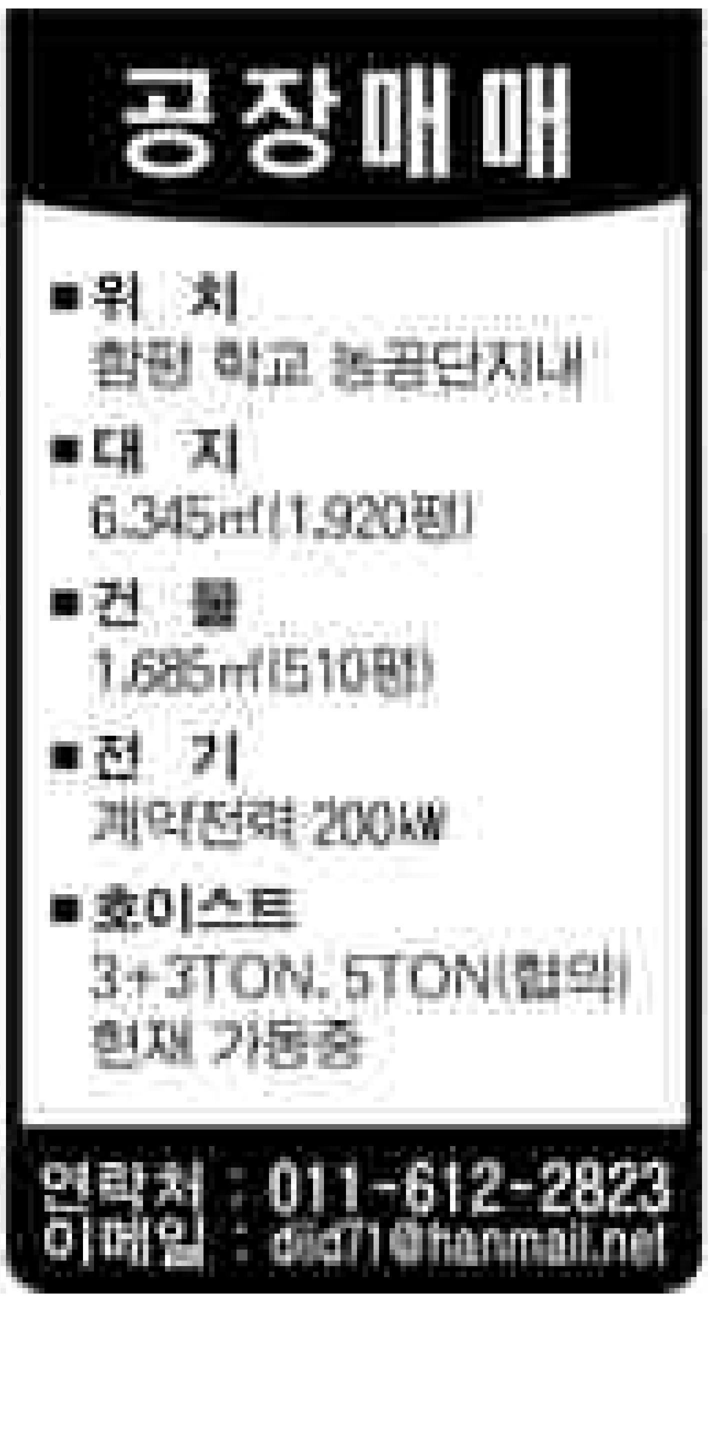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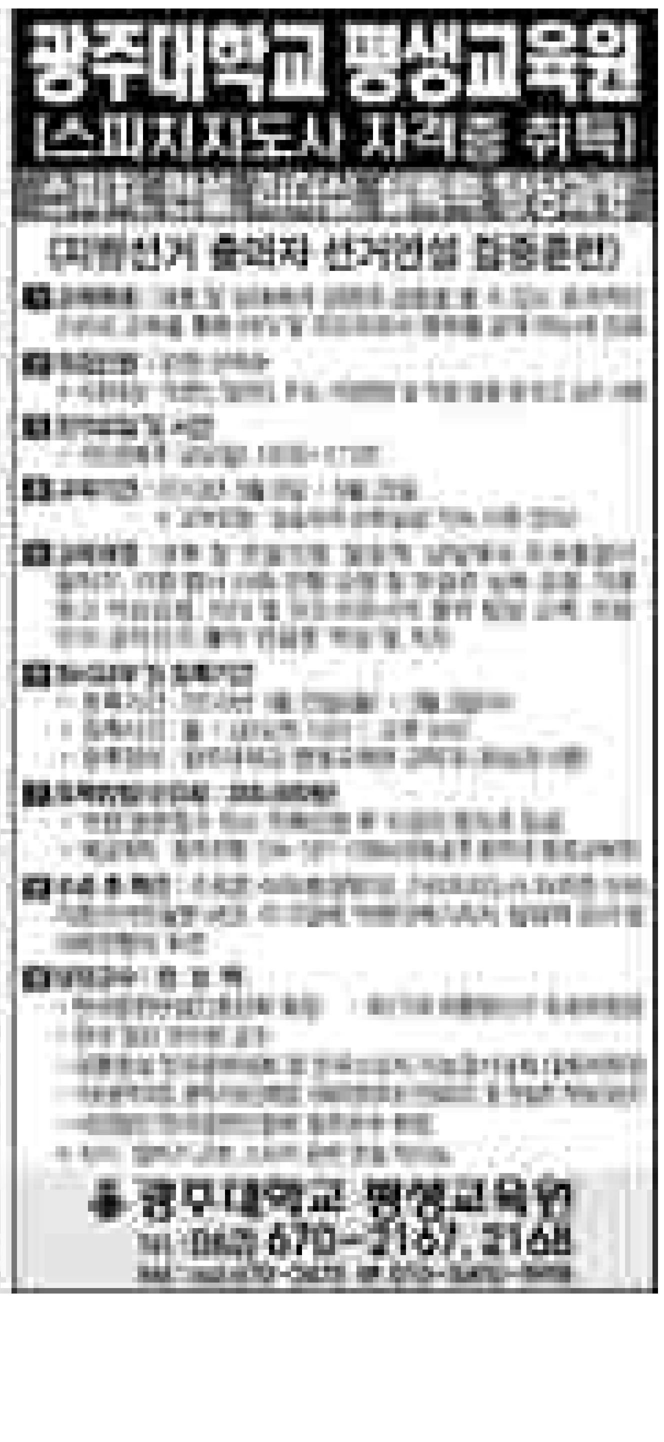
이 의원은 “남도 해양관광자원을 하나의 관광촌으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광주가 남도 해양관광의 출발지이자, 귀착지의 역할을 하는 남도 해양관광촌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 출마 선언

박홍률 전 국정원 충북지부장이 23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입당 예정인 박 전 지부장은 “목포의 개혁과 발전을 청렴정치를 통해 이루어내겠다”며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중심과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목포를 문화예술의 메카로 가꾸어 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목포중·고를 졸업한 박 전 지부장은 임동원 국정원장 비서관과 참여정부 인수위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황주홍 27일 출판기념회

황주홍 강진군수는 27일 오후 강진 국민체육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강진군에서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전남대학교출판부)는 이 책은 2004년부터 5년간 군정을 담고 있는 생생한 현장 기록으로, 인구 4만의 조그만 농어촌 지역에서 가난과의 싸움을 통해 전국적인 성공지역으로 이끈 황군수의 행정경험, 아이디어, 군정성과 등을 담았다.

/최권일·윤현석·박진표 기자 chadol@kwangju.co.kr